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범정부 협력 강화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 출범

피해자 생활지원금·특별지원금 등 의결
1천300억원 규모 지역 경제 회복 논의
금지사 “방위각시설 조사 별도 발표”
무안공항 정상화 로드맵 제시도 건의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위원장)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미경 민간위원장, 7개 관계부처 장관, 김유진 유가족 대표 등 위원 총 2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원·추모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계획,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 및 세부 지원계획 등 4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위원장)를 비롯한 관계 장관, 광주시장, 유가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간전문가 자문단은 항공과 법률, 세무 등 8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유가족 질의사항에 대한 전문 분야별 자문, 설명회 등 전문지식 제공 역할을 한다.

특히 참사에 따른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여행 업계와 지역 상권 지원, 문화·관광 등 총 13건 1천300억원 규모의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논의됐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신체·정신적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금 ▲근로자 치유 휴식 ▲법률 지원 ▲미성년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등이 의결됐다.

김 총리는 “유족의 목소리에 최우선으로 귀를 기울여 하루빨리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일상

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다음 달이 여객기 참사 희생자 1주기”라며 “국토부 등에서는 추모식이 희생자와 유가족께 최고의 예우를 갖춰 진행되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도 피해자 치유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생계안정 지원과 심리·의료 지원 등 유족이 원하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돼 신속히 시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전남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여행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여행업계의 타 공항 이용 교통비 지원 등 국비 지원과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시기 등 정상화 로드맵 발표를 건의했다.

사고 진상 규명과 관련, 그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별도 발표를 진행해 유가족이 조금이라도 납득하고 신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김 지사는 “이번 회의는 피해자 치유와 공동체 회복, 지역사회 재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결음”이라며 “전남도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대형 문화 인프라 사업 줄줄이 난항

광주시의회 행정감사

부지 미확보·심사 반려·경제성 부족 등
정무장 “6개 사업 예산만 눈덩이 증가”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문화 인프라 사업들이 부지 미확보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정무장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사진)은 12일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6개 핵심 문화사업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업이 지연될수록 도시 경쟁력과 시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따르면 문제가 된 사업은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140억원), 아시아 아트 플라자(190억원),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80

0억원),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산업(436억→721억원 증액 검토), 비엔날레 전시관(1천181억→1천282억원 증액 검토), 전문예술극장(3천억원) 등 6건이다.

총사업비는 당초 5천547억원에서 6천247억원으로 약 12.6%(700억원) 늘어난 상태다.

특히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산업과 비엔날레 전시관은 각각 721억원, 1천282억원으로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별 부진 사유도 각기 다르다.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는 부지 공모가 두 차례나 실패

했고 아시아 아트플라자는 부지 매입비 과다와 경제성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반려됐으며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산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제성 지표(B/C 0.08)가 낮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전문예술극장은 부지조각 확정하지 못한 채 예비타당성조사만 예정돼 있으며 비엔날레 전시관은 공사비 급등으로 연면적 축소까지 검토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광주시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형 문화사업은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와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호남특위, 첨단의료기기 산업 현장점검
이병훈 “헬스케어 도시 도약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위원회는 지난 11일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융합의료기기 관련 시설을 현장 점검했다.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는 손상된 장기나 신체조직 수복을 위한 생체이식용 소재와 부품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과용 임플란트와 수술기구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전문 인프라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택립 전 전남대학교 병원장, 안영근 전 전남대학교 병원장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강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기업 지원 체계 고도화,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신성장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첨단 의료기기 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광주가 AI, 로봇,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첨단 헬스케어 도시로 도약하도록 정책 방안 마련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박수기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실효성 의문”

광주시가 최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재추진에 나선 데 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사진)은 지난 11일 통합공항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재추진은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모두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미 불허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근본적 여건 변화 없이 같은 사안을 반복 제기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군공항 이전 T F 가동을 앞둔 시점에서의 임시취항 추진은 전남도, 무안군과의 신뢰를 흔드는 조급한 판단”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안공항 조기 정착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조치와 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면서 지역 관광업계 피해 회복 대책으로

▲타 공항 연계 교통편 증편 ▲환승·교통비 지원 ▲관광업계 긴급 운영자금 및 고용유지 지원 ▲중앙정부 특별교부세를 통한 관광·물류 인프라 회복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무안공항이 재개항되기 전까지만 임시취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꼭 기억해야 할 자전거 안전 수칙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자전거 타기!

기본 수칙만 알아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바퀴로 힘차게 달리는 안전한 생활, 우리 함께해요!

1 안전한 자전거 주행 기본 수칙

1 자전거는 한 줄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 불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는 가능

2 우회전 차량에 주의!

서행하며 차량 먼저 보내기
차량 운전자의 시야 벗어난 사각지대 주의 필요

3 횡단보도는 두 발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횡단도를 이용하여 건너기

2 교차로 좌회전 주행 방법

차량 신호로 좌회전 불가

자전거는 좌회전 신호가 아닌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 이동

꼭 기억하세요! 2번의 직진을 통한 좌회전 방법

1 직진 후 모서리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2 직진
*내려서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면 더 안전해요!

CMYK